



최 명 섭
임업연구원

화백의 수형은 가지가 수평으로 퍼지고 줄기는 곧게 자라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관상수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수령이 오래되면 가지는 적당하게 아래로 처져 우리의 정서와 부합되어 더욱 좋아하는 지도 모른다. 더욱이 잎이 진한 녹색으로 질감이 좋아 정원수, 공원수, 생활타리등으로 널리 식재 할만하다. 화백이 고가의 조경수는 아니지만 관상수로 많이 식재하는 것은 원추형의 수형이 손질을 자주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자태를 흐트리지 않는 장점과 맹아력이 강해 생활타리를 조성하여 운치를 높일 수 있고 과수원이나 농장등의 방풍림조성으로도 효과적이며 특히 번식력이 높아 묘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화 백

과명: 측백나무과
학명: *Chamaecyparis pisifera*
영명: Sawara Cypress
한명: 花柏



▲화백 수형

1. 생태적 특징

일본원산으로 우리나라에 1920년 경에 도입되어 중부이남의 각처에 식재된 상록침엽 큰키나무로서 수고 30~40m, 직경 80~100cm에 달한다. 화백의 수형은 가지가 수평으로 퍼지고 줄기가 곧은 원추형의 웅장한 피라미트의 형태를 이룬다.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에 대한 저항성이 침엽수중에서 가장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산복 이하의 계곡유역을 따라 잘 자라며 내음성과 내건성이 높을뿐 아니라 내한성도 강하며 맹아력도 좋아서

전정을 하여 각종 수형을 만드는데 유용하다.

2. 형태적 특징

북아메리카, 일본 및 대만에 6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편백(*C. obtusa*)과 화백이 도입되어 자라고 있다. 잎은 계란상 피침형으로 연한녹색이고 향기가 독특하다. 4월에 피는 꽃은 자웅2가화인데 암꽃은 작은 별모양이고 수꽃의 노란 꽃가루가 날릴 때면 꽃의 절정기이다. 9월에 노랗게 익는 열매는 5~6각형의 등근모양이고 직경 6mm정도이다. 편백에 비하여

백색기공조선이 W자형이고 잎의 끝이 기부로부터 떨어져 축감이 거칠다. 서구에는 품종이 수십종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식재 되고 있는 품종은 나무전체가 황금색을 띠는 황금화백, 수양버들처럼 늘어지는 수양화백, 노란색을 띠는 금화백, 앞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이는 서리화백, 키가 작은 난쟁이 화백 등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1970년 벨기에서 화백이 침엽수종 가운데서 공해물질인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에 가장 강한 나무로 연구 발표된 이래 도시의 주택이나 아파트, 빌딩, 학교, 공원, 공장등지에 식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심에는 산을

4. 번식법

종자를 파종해서 묘목을 얻거나 삼목을 하여 번식한다.

○종자번식

9~10월경 채취한 열매를 1주일쯤 말리면 종자가 나오는데 직파하거나 건사하였다가 파종 1개월전 모래와 섞어 노천매장 하였다가 이듬해 3~4월에 파종하며 종자의 수명이 짧아 1년정도밖에 못간다.

파종상은 평상을 만들어 뿌린 후 깊을 덮어 관수하며 위에 차광발을 설치하여 여름의 더위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약 두주일이면 발아하므로 그대로 두고 재배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10cm 간격으로 넓혀준다.

○삼목번식

여름에 건조가 덜하고 배수가 잘되는 깨끗한 토양에 삼목한다. 시기는 4~5월에 좋으며 삼수는 지난 해 자란 가지중 잘 굳은 것을 10~15cm길로 잘라 물에 담그어 충분히 흡수시킨후 1/3쯤 잎을 따버리고 꽂는다. 꽂은 후에는 충분히 관수하며 차광하여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면 대개 2개월정도면 뿌리가 내린다. 활착 후 그대로 재배하였다가 다음해 넓혀 심는다. 활착율은 80%내외이다.

5. 그 밖의 용도

목재는 재질이 거칠기는 하나 단단하여 건축, 토목, 기구재로 사용한다.



▲화백 열매



◀화백 꽃

절토하거나 흠을 받아 아파트나 공장부지를 만들면서 무기물의 함량이 거의 전무한 토양에 많은 나무를 의무적으로 식재하게 되는데 공해에도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자라는 화백이야말로 이러한 곳에 적합한 수종이 아닌가 판단된다. 맹아력이 강하여 높은 방풍림이 요구되는 과수원이나 농장 등의 생울타리목으로는 안정 맞춤이라고 생각된다.